

대동맥궁 완전 절개술의 임상적 고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경환, 안혁, 노준량

1990년 10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총 19명의 환자에서 대동맥궁 절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남녀비는 10대 9, 평균 연령은 52.5세 였다. 원인 질환은 급성 대동맥 박리가 10례, 만성 대동맥 박리가 4례, 대동맥궁류 (aortic arch aneurysm)가 5례였다.

수술은 대동맥궁 완전절개가 9례, 부분 절개가 10례였으며 전체 순환 정지와 섭씨 16~20도의 저체온법을 이용하였고 평균 전체 순환 정지 시간은 35.5분 이었다.

1례에서는 전체 순환 정지를 이용하지 않고 대동맥 차단만으로 좌경동맥 기시부 이하의 대동맥궁 절개를 시행하였고, 2례에서는 전체 순환 정지 기간 중 선택적 뇌관류를 시행하였다.

대동맥 박리 환자 14명중 고혈압 환자가 10명, 고혈압이 없는 환자가 2명이었고 Marfan 증후군 1명, 임신부(임신중독증)가 1명이었다. 14명 전체에서 흉통을 호소하였다. 대동맥류 환자 5명중 베체트씨 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1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죽상경화성 대동맥류로 판명되었다.

6명의 사망환자가 있어, 32%의 사망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13명은 외래 추적 진료중이다.

요약어 : 대동맥궁 절제술